

‘노마스크 무더기 확진’ 전남도, 고발 등 강력조치

“헬스장 이용객 대부분 마스크 쓰지 않고 운동”

전남지사, 행정명령 발동 위반 강한 제재 방침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발동한 전남도가 ‘노마스크’로 인한 코로나 19 감염이 잇따르자 고발 등 강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서울 무한그룹 방문판매발 코로나19 집단의 감염이 심각한 순천 헬스클럽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잇따른 가운데 감염자와 헬스장 이용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확진자 12명이 발생한 순천 청암휘트니스에서는 대부분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전남 75번)을 정밀조사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하루 두차례 헬스장을 다녔다”면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김신생휘트니스 역시 격한 스피닝 운동을 하는 강사로부터 3명의 회원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들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스피닝운동은 밀폐된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데 마스크도 쓰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노마스크에 따른 잇단 감염에 대해 행정명령에 따른 고발 조치 등 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1일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김정환 기자



전국 의사 2차 총파업 첫날 전남 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경기 수원시 이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 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의 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직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

8월 비브리오패혈증 60.7%로 증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바닷물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우려되는 어패류 등 섭취와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나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과 해수(수족관 물)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 검사 연중 실시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 추이를 연중 모니터링 한 결과 3~4월 10% 미만이었다던 비브리오패혈증 검출률이 5월 36.4%에서 6월 52.3%, 7월 54.9%, 8월 60.7%로 증가했다. 5월 이전에는 장염비브리오패혈증만 검출됐지만 6월 이후에는 바지락, 꼬막 등 패류에서 비브리오패혈증 균도 검출되고 있다. 장염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면 설사

와 미열이 동반될 수 있고, 비브리오패혈증 균에 의해서는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과 피부 병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등 감염고위험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정미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식품미생물과장은 “구입한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며 “조리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어패류를 사용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재사용해야 다른 식품과의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안전 불감증’ 댐 수위 오르는데 불법시설물은 요지부동

농어촌공사 ‘자진철거 권고’에도 묵묵부답...철거소송 예정



나주호 방류수로 인근에 설치된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119소방,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다.

설물 43동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했지만 주민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위 상승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무단경작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통보를 했지만 불법 경작행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6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철거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은 앞서 지난 7~8일 연이틀 간 전남지역에 최고 5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침수 직전까지 치달은 상황에서도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주민들이 철거 요청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사는 불법시설물이지만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119소방구조대와 경찰,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동원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승강이만 벌인 채 빈손으로 현장에서 철수해야 했다.

문제는 집중호우 시 홍수조절을 위해 제때 사전방류를 실시해야 하는데 방류수로 지체에 불법건축물과 시설물이 방치돼 있는 탓에 물 흐름의 장애가 된다는데 있다. 지난번 폭우 때도 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해야 했지만 수로 주변에 놓인 불법시설물 등 때문에 수위 조절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지역의 4대 농업기반시설로 꼽히는 나주호는 지난 1976년에 축조됐다. 2014년 독 높이기 사업 완공으로 약 1억8백만까지 담수 용량이 커지면서 국내 농업용저수지 중에선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나주호는 지난해부터 올 8월 현재까지 잦은 강우와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역대 최대 수위 65.62m(저수율 74.8%)를 기록했다.

최이슬 기자

전남 섬지역 학교들, 태풍 ‘바비’로 원격수업

역대급 강풍으로 큰 피해 우려 섬 전체 비대면

제8호 태풍 ‘바비(BAVI)’의 북상으로 전남지역에 강풍 피해 등이 우려되면서 섬 지역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6일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전남 도내 전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풍수해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급 강풍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섬에는 전체 비대면

원격수업을 실시할 것으로 당부했다. 등교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완도 32개교, 진도 12개교, 여수 5개교, 영광 4개교 등 모두 80개교에 이른다. 현재 태풍 ‘바비’는 제주 서귀포 서쪽 210km 해상에서 시속 24km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최대 풍속은 초속 45m, 강풍 반경은 320km에 이르는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해 있다.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기 시작하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광주·전남 곳곳에 초속 50m 안팎의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도 교육청은 재난대응상황실을 구성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 방역활동 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태풍까지 불어와 현장의 노고가 더욱 크겠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